

“업계 희망되는 기사 많이 쓰길”



코리아니켈·켄코 최내현 대표

철강·비철금속 업계 대표 언론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철강금속신문의 창립 25주년을 코리어나니켈·켄코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업계에 희망이 되는 기사를 많이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철강·비철금속업계가 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좀더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든든한 동반자로 더욱 발전하길”



덕신하우징 김용희 대표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철강금속신문은 국내 철강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철강 전문 정보지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건전한 비판으로 철강업계 발전을 도모해온 25년의 노력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계의 든든한 동반자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덕신하우징도 함께 성장하며 걸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정보·예리한 분석기사 기대”



한국특수스틸 황수백 대표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철강금속신문은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철강인들의 사정을 대변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철강금속신문이 양질의 뉴스와 예리한 분석을 통해 철강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업계 교류·소통의 장 역할 지속”



이앤지스틸 김성국 사장

철강금속신문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철강금속신문은 지난 1994년 창간 이래 철강 및 금속 산업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교류와 협력, 정보가 모두 어울리는 소통의 장 역할을 지속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철강금속신문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철강업계 내 정보 언론지로서 바른 길을 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업계에 등불되는 정보 제공 최선”



중일 박용필 대표

철강금속신문 25주년, 더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길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재생연 업계 문제를 자세하게 다뤄준 것에 감사하며 더욱

업계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주길 바랍니다. 국내외 사업 환경 약화에 재생연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철강금속신문이 다양한 철강·비철금속 정보를 통해 업체들에게 등불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미래 대비 도움”



지에스디케이 오성영 사장

국내 철강·비철금속업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철강금속신문, 25주년을 맞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계에 종사하며 철강금속신문에서 여러 정보

를 취득했기에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기사와 콘텐츠를 부탁드립니다. 철강·비철금속업계가 각종 내외요인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주길 기대합니다.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듯이 업체들이 정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랍니다.

“철강업계 생존 위해 많은 정보 부탁”



충남스틸 김완태 대표

S&M미디어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강기초산업에 뛰어난 정보를 시장 및 수요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철강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

니다. 또한 기업 간 직접적 우대 관계를 성립시키는 등 많은 시너지를 올리며 업계 내 없어서는 안 되는 전문 언론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철강업의 생존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부탁드리며 창간 25주년을 또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강 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돼야”



대동스틸 임주희 사장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철강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비추며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를 대변하고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대표이사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철강금속신문이 변함없이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철강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인에 대한 배려·관심 부탁”



대한강업 권기호 부회장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국내외 철스크랩 가격 변동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철스크랩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특히 제강사와 납품업체가 더 많은 상생이 이뤄진다면 자급자족시대는 더 빨리 열릴 것입니다. 우리 업계는 제강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200만 재활용인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동반자로 번창하길”



삼천리금속 조현익 대표

주조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은 흔히 전통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뿌리업계에도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조산업 분야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3D프린팅과 같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강금속신문은 창간 이래로 국내 철강산업과 비철금속산업, 뿌리산업계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25세 청년이 된 올해부터는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변모하는 국내 철강·비철·뿌리업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계에 대안 제시하길”



고려철재 빈욱균 사장

에스앤엘 미디어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국내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미디어 전문지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철강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해 철강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심층 분석하고 우리 철강업체들에 대안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산업발전 역할 수행”



한국철강자원협회 임순태 회장

우리나라 철강산업 및 철스크랩 산업과 발전해 온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철강금속신문은 철스크랩에 관련된 체계적인 시장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분석해 통계화하며 철스크랩 유통의 참고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세미나 및 선진기업 시찰 등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보지로 남아주시길 기원합니다.

“업계 동반자 역할 충실”



한국건설기술타회 한영섭 회장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20여 년 전 건설시장의 불모지 상태에서 출범했던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자재 안전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업계 대표로 회장직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건설업계가 더욱 발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철강금속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철강금속·뿌리 업계 대변지 역할에 더욱 충실하십시오”